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9호 [루게 제24692호] 주제 103(2014)년 10월 6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평양시민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한 우리 선수들을 연도에서 열광적으로 환영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힘찬 발걸음드높이 거창한 변혁이 창조되는 내 나라, 내 조국에 경사가 있다.

아시아와 세계체육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여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어머니조국은 축하의 꽃다발을 엮어 뜨겁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대미약의 기상을 파시하며 세인을 놀래운 우리 선수들의 쾌승이 온 나라를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세계의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언론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 우리의 여자축구선수들은 조별리그경기에서의 연승에 이어 준결승경기에서 남조선팀을 2:1로,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3:1로 누르고 단연 제1위를 쟁취하였다.

력기, 탁구, 레스링, 체조, 사격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도 우리의 체육인들은 10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영예의 단상에 올랐다.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이 승리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과 체육중시사상의 생활력의 힘있는 파시로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놀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정을 백배해주고 있다.

5일 승전의 개가놀이 돌아온 체육선수들을 환영하는 수도 평양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런몽둥이구로부터 룡흥거리, 개신문거리, 창전거리, 천리마거리 등에 이르는 수십리 연도에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의 장한 아들딸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고



람홍색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을 듣고 달려나온 수심만 평양시민들은 노래를 부르고 축판을 펼쳐놓으면서 필승의 신념과 완강한 투지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미더운 아들딸들을 열싸안을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안아보자,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을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관대행무개차들을 선두로 하는 차행렬이 런몽둥이구에 들어섰다.

《축하》 등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환희의 꽃뭉치가 펼쳐졌다. 승리자들을 축하하는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우단원의 환영주악소리

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미더운 아들딸들을 열싸안을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애국에 넘친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들을 가슴마다에 한가득 안고 경기장을 누비는 그 나날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은 수도의 근로자들과 상공의 기쁨을 나누었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파어낸 자국을 새기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문으로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들어섰다.

제14차, 제15차 아시아경기대회이름에 피어낸 자국을 새기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문으로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들어섰다.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장한 딸들의 경기성과가 너무도 대견하시어 그들을

천히 불러 크나큰 영광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영상은 그대로 승리의 표대였고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이었다.

차행렬이 서성구역 근로자들로 가득찬 장산거리를 지나 룡흥거리로 들어서자 환영의 물결은 더욱 세차게 일어번졌다.

수많은 청년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두손을 높이 들어 꽃다발을 열정적으로 흔들고 어깨동무하며 축하의 함성을 지르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인 우리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금성거리입구의 영생탑을 우러르는 선수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체육인들을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파시한 개선장군들이라고 하시며 온갖 은정을 다 베풀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우리의 여자축구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으니 선수들과 군중들은 숨얼른 감정에 휩싸여 가슴들먹였다.

끝없이 물결치는 환영의 파도를 헤가르며 차행렬은 개선문으로 향하였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파어낸 자국을 새기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시어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문으로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들어섰다.

3 면으로 계속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특기할 성과를 이룩한 우리 선수들

평양 양도 착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떨친 경이적인 승전소식으로 온 나라의 경사를 안아온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자랑스럽고 미더운 체육선수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겼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함께 왔다.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아시아의 45개 나라와 지역의 1만 4,500여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결전을 벌였다.

경기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세계인기들을 편이 수렴하며 높은 실력으로 전방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 나라 선수들은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우리 여자선수들은 체육에서 상징종목인 축구경기에서 16개의 골을 넣고 세계여자선수권보유팀인 일본팀을 비롯한 맞닥든 모든 팀들을 물리침으로써 제1위를 쟁취하여 축구강국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었다.

우리 선수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체육강국건설의 용대한 구상을 펼쳐시키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

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날리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친 체육선수들과 일군들을 맞이하는 평양국제비행장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비행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비행장에 세워져있었다.

국기계양대에는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으며 비행장내에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쓴 구호판이 세워져있었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심장의 피를 끓여 경기마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고 돌아오는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을 맞이하기 위해 체육인들과 선수들의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관중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경기장마다에 휘날리던 공화국기들과 영예의 메달들을 지니고 비행장에서 내린 선수들은 자나깨나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기쁨으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온 세계가 다 아는 체육강국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정에 북받쳐 선수들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봉애동지, 김양진동지, 김병해동지, 최두철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럽철성, 오금철,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들, 경기대회에 참가한 종목별회의 위원장들, 후원단체 책임일군들, 관제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육인들과 근로자들, 가족들이 선수들에게 꽃뭉치를 걸어주고 꽃다

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선수들은 주체적인 체육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선철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품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의 품속에서 세계적인 체육강국자로 자라난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 《축하》, 《강하다》를 웨치는 군중의 환호소리가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울려퍼져서 메아리쳐갔다.

여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체육선수들을 태운 배스행렬은 순안구역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평양시민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경기적인 성과를 이룩한 우리 선수들을 연도에서 열광적으로 환영

1 번에서 계속

모란봉구역안의 각계층 군중들은 우리의 선수들을 위해 환희의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여자축구를 선수들의 결승경기장면을 눈물없이 볼수가 없었다. 텔레비전화면에서 그들의 불사신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온몸이 격정과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우리의 딸들이 총 16개의 풀로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강팀의 명성을 떨친것은 참으로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경사이다. 그들모두를 꽃방석에 앉혀 온 세상에 보란듯이 떠올리고있다.》 이것은 비단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회의 한 일꾼의 심정만이 아닌 온 나라 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두 풀을 성공시켜 명승부성을 울린데 이어 일본팀과의 결승경기에서 상대팀 골문에 첫 파격구를 낸 12번 김유미선수. 경기장에서의 맹활약으로 맞타드는 모든 팀들과의 대전을 승리해오던 10번 주장 라은심선수와 경기대회기간 수치의 멋있는 풀로 팀의 승리에 이바지한 11번 리예경선수. 기세찬 돌입과 야무진 페리발기로 기묘한 골들을 넣어 아시아최강팀의 험난한 전과를 더욱 크게 한 득점명수 3번 최은별선수. 그들모두가 치열한 결승경기에서 이룩한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눈물로 더치며 열산안고 탐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릴 때 장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온 나라 인민도 격정을 누를길 없이 뜨거웠을 삼키지 않았던가. 우리 선수들을 태운 차행렬이 개선문을 지나 칠성문거리에 들어서자 연도에 점점 늘어선 군중에서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 경기장을 향해 같이 날아온 여자축구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더욱 큰 힘을 얻고 일터마다에서 즐과 격심으로 화답해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공화국기와 꽃다발을 흔들고 《강하다》, 《잘 싸웠습니다》라고 목청껏 웨치며 그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상대팀 골문을 향해 연속 돌입하며 맹판 공격을 들이치고 조국의 영에

를 지켜온 5차례의 치열한 경기들. 그 순간순간들은 그대로 위대한 선군명장의 완강한 공격정신과 배짱, 천변만화의 지략과 전술로 싸워온 분과 초들이었음을 어머니조국에 이바지한 여자축구는 선수들은 환영하는 군중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고 또 보내었다. 체육명수들을 맞이하는 군중의 환영은 차행렬이 천리마동상앞 연도에 이르자 더욱 고조되었다. 1960년대에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아시아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하여 세인을 경탄시킨 《천리마축구선화》, 세계탁구너왕, 마라손너왕을 낚은 민족의 긍지를 빛내며 아시아의 축구페전을 쟁취한 미더운 딸들이 사랑의 꽃수레를 타고 나타나자 군중들은 저마다 달려나가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선군시대 우리 여자선수들의 축구기술에 세계체육계와 언론계가 얼마나 경탄하였던가. 가까이 하게 되자 군중들의 환호가 더욱 높아졌다. 예선에서 맞타든 팀을 가별게 물리치고 16강전과 준결승경기들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그들은 준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4:1로 타승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의 마당이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기상을 시위하는 판권적계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 그들은 경기경험이 풍부한 만만치 않은 상대인 중국 홍콩선수들을 4:1로 압승하는 전과를 이룩하였다. -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제일먼저 안겨졌다. 그이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경기마다에서 편전편승합수 있었다. - 모든것은 사상의 의하여 결정된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체육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기적을 낳은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앞으로도 조국과 인민에게 기쁨을 주는 더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우승의 단상에서 금메달수상자들이 터진 격정의 토로는 우리의 체육인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총성의 목소리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대의 영광, 행복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 위훈의 탑을 높이 세운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축복은 이렇듯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김일성광장에 이르러 군중들의 환영은 절정을 이루었다. 예술인들이 펼친 부채춤, 장교춤 등 화려한 출판과 이색로운 표예무

수권대회에서 아시아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하여 세인을 경탄시킨 《천리마축구선화》, 세계탁구너왕, 마라손너왕을 낚은 민족의 긍지를 빛내며 아시아의 축구페전을 쟁취한 미더운 딸들이 사랑의 꽃수레를 타고 나타나자 군중들은 저마다 달려나가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선군시대 우리 여자선수들의 축구기술에 세계체육계와 언론계가 얼마나 경탄하였던가. 가까이 하게 되자 군중들의 환호가 더욱 높아졌다. 예선에서 맞타든 팀을 가별게 물리치고 16강전과 준결승경기들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그들은 준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4:1로 타승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의 마당이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기상을 시위하는 판권적계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 그들은 경기경험이 풍부한 만만치 않은 상대인 중국 홍콩선수들을 4:1로 압승하는 전과를 이룩하였다. -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제일먼저 안겨졌다. 그이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경기마다에서 편전편승합수 있었다. - 모든것은 사상의 의하여 결정된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체육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기적을 낳은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앞으로도 조국과 인민에게 기쁨을 주는 더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우승의 단상에서 금메달수상자들이 터진 격정의 토로는 우리의 체육인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총성의 목소리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대의 영광, 행복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 위훈의 탑을 높이 세운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축복은 이렇듯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김일성광장에 이르러 군중들의 환영은 절정을 이루었다. 예술인들이 펼친 부채춤, 장교춤 등 화려한 출판과 이색로운 표예무

《자기 식의 경기방식을 실현한 우리 승팀》, 《정신력과 체력이 제일 강한 팀》, 《힘과 속도에서 누구도 따를수 없는 팀》, 《민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연속승공능력을 지닌 팀》... 이것이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준 여자축구의 모습이었다.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고 영예의 금메달을 어머니조국에 안고온 자랑스러운 딸들이기에 인민들의 환영의 열파는 더욱더 거세차고 뜨거웠던 것이다. 대로 하여 광장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연대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백두명장들의 시열을 받고 무적의 열병태도가 보무당당히 지나던 이 광장에 승리가 되어 들어서는 체육인들의 감격과 환희는 정녕 끝이 없었다. 예술인들과 청년학생들이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자랑스러운 선물을 안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우리 선수들을 높이 떠올리라고 웨치며 예술인들과 각계층 군중들이 선수들을 열산안고 노매를 부르고 춤추면서 기쁨을 한껏 터치었다. 환희의 꽃목걸에 떠날뉘린 차행렬은

김일성광장을 떠나 또다시 수도의 거리들을 누벼나갔다. 평양대극장을 지나 영평거리의 연도에 늘어선 선교구역의 근로자들이 《강하다 우리 선수들》, 《환영》, 《체육강국》 등의 손편구호를 들고 체육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대형전광판으로 우리 선수들의 경기파장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시청자들로 낮에 밤을 이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평양역광장이 그 주인공들을 포용하여 거세한 인파에 휩싸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 김대성은 특별한 득점장면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 오늘은 아시아체육계를 뒤흔들어놓았지만 앞으로도 세계페전을 당당히 쥐고나갈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족의 기쁨을 과시한 그들처럼 최첨단과전을 맹렬히 벌려 선군조선천년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비단 그 하나의 심정이 아니라 불굴의 정신력과 투지, 높은 기술과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선수들의 애국의 발걸음에 맞추어 조진속도창조의 불길들 더 세차게 지퍼갈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심장의 화답이다. 사회주의조건을 빛내인 위훈자들은

을 맞이하는 수도의 환영열기는 시리도록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천리마거리의 연도에서 차행렬을 맞이한 군중들은 학생소년들의 힘찬 휘추악소리에 맞추어 환희의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발걸음에 심장의 보복을 맞출 때 력사의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 삶과 투쟁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준 선수들에게 각계층 근로자들은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차행렬은 보물문을 지나 만수대거리로 서서히 미끄러져갔다. 조국의 아들딸들의 장한 모습을 보고싶어 키돋음, 발돋음을 해가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 그 뜨겁고 열렬한 환영에 눈물을 적시는 체육선수들. 승리자의 위훈적인 선수들과 연도에 늘어선 환영군중들모두의 억척불변의 마음을 담아서인자 수도 평양의 거리들에서는 《승리는 대를 이어》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특기할 체육경기성과를 이룩한 장한 아들딸들을 뜨겁게 포용한 군중의 환호가 연도에 세차게 끓어오르는 속에 차행렬은 만수대거리로 향하였다. 가장 경건한 마음이고 만수대거리

에 오른 체육선수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대원수님들을 위하여 삼가 인사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또다시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안고왔습니다. 선수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도따라 국제경기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림으로써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는데 이바지해갈 총성의 맹세를 다지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과시한 체육선수들을 축하하여 수도의 거리들에 펼쳐진 감격적인 화폭은 온 나라에 타번지는 체육열풍과 더불어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일심단결의 위력의 힘이 분출이다. 천만군민은 우리 당이 안겨준 백두의 담력과 의지,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마다에 탐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체육선수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달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기자들과 회견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돌아온 우리 여자축구는 선수들을 비롯한 선수, 감독들이 5일 평양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에는 평양시내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 선수단 단장인 김병식 체육성 부상은 먼저 이번 경기대회규모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선수들은 여자축구를 경기에서 맞타드는 모든 적수들을 물리치고 영예의 제1위를 하였으며 력기경기에서도 세계신기록과 아시아기록, 아시아경기대회기록들을 갱신하였다. 타구를 비롯한 다른 종목의 경기에서도 강팀이라고 자처하던 여러 나라 팀들을 타승하고 우승함으로써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여자축구는 주장 라은심은 우리 여자축구가 아시아의 최강팀으로 당당히 올라서게 된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그대 우리들의 담력과 배정으로 되였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3년 동아시아여자축구가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들을 친히 몸가끼이 불러서도 세계신기록과 아시아기록, 아시아경기대회기록들을 갱신하였다.



가을걷이 전투를 추동하는 위력한 당조직정치사업

협동벌을 짧게 하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

황해남도의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모든 선동을 더욱 격조 높게 함으로써 대중을 강력적위력으로 힘있게 불러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황해남도의 당조직들에서 농업 근로자들과 지인자들을 가을걷이 전투에 고부추동하기 위한

포전집중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러나가고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포전집중정치사업의 특징은 한마디로 내용이 참신하고 형식이 화선식이라는 데 있다.

아래에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벌러나가고있는 포전집중정치사업에서 주목되는 몇가지를 소개한다.

심숙이 지난해보다 두배나 많은 980여대의 포전방송기계가 군안의 협동농장의 모든 분조들에 갖추어지게 되었다.

당일군들과 선동원들도 마이 크를 쥐고 맹활약을 하였다. 선동적이며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포전방송은 농업근로자들과 지인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

고 승벽심을 높여주기 위하여 경연도 조직하였다. 웅진군기동에 예술선동대, 은봉군기동에 예술선동대, 연안군기동에 예술선동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웅진군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은 가을걷이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포전방송기계를 가지고 협동벌을

순회하면서 하루에 평균 3회의 예술선동을 벌러나가고있다.

특히 은봉군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의 예술선동은 정치성과 예술성이 잘 결합되고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인자들의 절찬을 받고있다.

5100여대의 포전방송기계의 위력

황해남도의 가을걷이전투의 하루하루는 5100여대의 포전방송기계를 출동시키는 방향으로 시작되고 방송으로 마무리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히 형상적으로 가르쳐주신 것처럼 협동벌에 전제된 포전방송기계를 방송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위력을 떨치고있다.

당일군회 선전선동부에서는 포전방송기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선전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잘 하였다.

가을걷이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군당위원회회의에서 군당일군회 선전선동부에서는 포전방송기계에 대한 집중비밀을 잘하고 방송출력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분조들에 포전방송기계를 마련하고 방송편지를 보다 참신한 내용들로 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연안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선전선동부에서는 포전방송기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포전방송기계의 대수를 늘이고 그를 통한 선전선동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러나가기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하게 하였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포전방송기계를 출동시키는 조직적인 것인 그 한 실례이다.

실효성 높은 포전강연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진행하고있는 포전집중정치사업은 포전강연을 통해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시, 군들에 적외강연장과 포전강연장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였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이들이 벌러나가는 강연선전은 호소성이 높고 통속적이어서 누구나가 기다린다.

포전강연

말고대로 화선식이다.

청단군당위원회는 풍로자강연강사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였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이들이 벌러나가는 강연선전은 호소성이 높고 통속적이어서 누구나가 기다린다.

웅진군당위원회, 안악군당위원회에서도 능력이 있는 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나가고있다. 농업근로자들과 지인자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래를 배합하여 통속적으로 진행하는 이들의 강연을 듣고나면 신심과 열정이 솟아올라온다.

감화력이 큰 예술선동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벌러나가고있는 포전집중정치사업의 위력은 도안의 군기동에 예술선동대, 협동농장기동에 예술선동대 활동을 통해서도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5개의 군기동에 예술선동대들과 360여개의 협동농장기동에 예술선동대가 일제히 포전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힘있게 울리고있다.

당일군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시, 군기동에 예술선동대의 수준을 높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러

고품군 방성리당위원회에서 포전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러 농장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작업반, 분조들로 열고 집중대화, 편속로화, 명중포화를 통하여 가을걷이전투에 떨쳐나갈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제3작업반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우리가 불내, 여름에 애써 농사를 지어놓았어도 가을걷이와 낱알떨기를 주한다면 자각을 가지고 잔지게 하지 못하면 많은 낱알을 잃어버릴수 있다고 하면서 고부추러 열게 되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러

고품군 방성리당위원회에서 포전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러 농장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작업반, 분조들로 열고 집중대화, 편속로화, 명중포화를 통하여 가을걷이전투에 떨쳐나갈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제3작업반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우리가 불내, 여름에 애써 농사를 지어놓았어도 가을걷이와 낱알떨기를 주한다면 자각을 가지고 잔지게 하지 못하면 많은 낱알을 잃어버릴수 있다고 하면서 고부추러 열게 되는

사상공세의 위력 힘있게 떨치며 열두삼천리별의 당조직들에서

열두삼천리별이 꽃고있다.

농업선전을 사회주의수호선의 전초선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열두삼천리별의 당조직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드세차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러야 합니다.》

열두삼천리별의 가을걷이전투분위기가 매우 좋다. 당일군들이 가을걷이전투가 벌어지는 농장별 한복판에 전투지휘처를 조직하고 조직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러나가고있다.

속진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전선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일군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분조들을 하나씩 만나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군당일군들은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대화, 편속로화, 명중포화를 통하여 가을걷이전투에 떨쳐나갈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사상공세의 드세 화속에 열두삼천리별은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있다. 가을걷이실적은 날마다, 시간마다 부쩍부쩍 뛰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본사기자 채인철

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전선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일군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전선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일군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전선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일군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들의 작업반장, 분조장 이상 일군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하여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선광장에 내려치는 기술혁신열풍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선광직장에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선광직장에서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정광생산을 높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기술혁신을 하여 새로운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자재소비를 줄이려야 합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생산장소의 예비 기술혁신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기술혁신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적극적인 지도 밑에 2선광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은 PLC장치에 의한 공정조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공정의 실시간감시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진행함으로써 정광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또한 직장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는 한 번 분급공정 광맥탐색의 본체인물작업을 자체의 기술력으로 해결함으로써 많은 자량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고설비의 수명을 훨씬 늘였다.

중산의 예비 선별공정에서 찾은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은 종전의 원형형자간기를 새롭게 개조하고 거기에 동력을 전혀 쓰지 않고도 선별효율이 높은 기동식자간기를 우리 식으로 제작설치하여 종전보다 1% 더 높은 정광률을 보장하고있다.

생산공정마다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이들의 창조적 지혜와 헌신적노력이 위하여 지극 정열을 발휘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다.

글 및 사진 지혁철

글 및 사진 지혁철



인민들에게 더 많은 버섯을

장자강버섯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흰곰팡이버섯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성속에 장자강이 숲에 새로 일어난 장자강버섯공장은 곧배양과 버섯재배공정의 과학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장이 완공 후 여러달동안에만도 50t 이상의 흰곰팡이버섯을 생산하여 도의 여러 단위들과 강제시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지금 공장에서 매일 많은 흰곰팡이버섯을 생산하고있다.

지배인 박명식, 책임기사 강철봉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원로, 자제 확보이자 버섯

장자강버섯공장에서

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또한 버섯생산의 마감공정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재배장의 온도, 빛, 습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며 흰곰팡이버섯재배를 잘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에서 자체의 합류리조합조성선과의 연계에 드넓은 배양장의 온도도보

장진군 신흥협동농장에서

여기는 감자가을걷이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는 장진군 신흥협동농장 제4작업반 뒤슴지업반이다.

감자밭두리 여기저기에 펼쳐나뭇기는 붉은기와 포전머리에 세워놓은 이동식작업반장 강승기동무가 한미더 한다.

《자, 동무를 좀 쉬고 하지요.》

당세포머리 리정충동무가 4분조 선동원 문정실동무에게 《로동신문》을 넘겨주며 의미있는 눈길을 보낸다.

《당조직들과 협동농장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안다를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붉은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른아침부터 전투에 뛰어난 작업반원들의 기세는 참으로 든든하다.

깊숙이 보습날을 바라부지런히 소를 몰아가는 무리소반리공의 발밑으로 흙밭들이 툭툭 번져지고 주먹같은 감자알들이 해베에 알찬 모습을 드러낸다.

감자알들을 삼태기에 담아 부

지런히 나르는 작업반원의 얼굴에도, 적재함에 감자를 들뜬 식고 달려가는 트랙트르운전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다.

차거는 가을날에도 송골송골 내내인 평양을 수없이 조속 문지르며 작업반장 강승기동무가 한미더 한다.

《자, 동무를 좀 쉬고 하지요.》

당세포머리 리정충동무가 4분조 선동원 문정실동무에게 《로동신문》을 넘겨주며 의미있는 눈길을 보낸다.

《당조직들과 협동농장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안다를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붉은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른아침부터 전투에 뛰어난 작업반원들의 기세는 참으로 든든하다.

깊숙이 보습날을 바라부지런히 소를 몰아가는 무리소반리공의 발밑으로 흙밭들이 툭툭 번져지고 주먹같은 감자알들이 해베에 알찬 모습을 드러낸다.

감자알들을 삼태기에 담아 부

지러니 나르는 작업반원의 얼굴에도, 적재함에 감자를 들뜬 식고 달려가는 트랙트르운전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다.

차거는 가을날에도 송골송골 내내인 평양을 수없이 조속 문지르며 작업반장 강승기동무가 한미더 한다.

《자, 동무를 좀 쉬고 하지요.》

당세포머리 리정충동무가 4분조 선동원 문정실동무에게 《로동신문》을 넘겨주며 의미있는 눈길을 보낸다.

《당조직들과 협동농장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안다를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붉은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른아침부터 전투에 뛰어난 작업반원들의 기세는 참으로 든든하다.

깊숙이 보습날을 바라부지런히 소를 몰아가는 무리소반리공의 발밑으로 흙밭들이 툭툭 번져지고 주먹같은 감자알들이 해베에 알찬 모습을 드러낸다.

감자알들을 삼태기에 담아 부



